

#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 분석에 의한 관리방안 연구

## A Study on Management Issues Based on User Attitudes of Electronic Academic Journals

정 동 열(Dong-Youl Jeong)\*

### 목 차

- |                            |                        |
|----------------------------|------------------------|
| 1 서론                       | 3.5 전자학술저널 이용상의 장단점 비교 |
| 2 전자저널의 개념과 특성             | 4 전자학술저널의 관리방안         |
| 3 전자학술저널 이용행태분석            | 4.1 전자학술정보 관리의 필요성     |
| 3.1 응답자 구성                 | 4.2 선정과 수집             |
| 3.2 전자학술저널 및 전자정보 이용 여부    | 4.3 정리와 저장             |
| 3.3 전자학술저널 정보수집, 평가 및 이용방법 | 4.4 정보제공               |
| 3.4 전자학술저널 비이용 요인          | 5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는 학자들의 전자학술저널 이용행태분석을 통하여 전자학술저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저널의 개념적 특성, 이용자의 사고,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자들의 전자저널 이용행태를 대학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 이용가능한 전자학술저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 ABSTRACTS

This study assesses user attitudes towards electronic academic journals and suggests management issues for users and information managers. To reveal academic scholars' user attitud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survey the concepts of electronic journals, though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a sample of university faculty. Based upon various aspects of user attitudes, this study derives effective management techniques for electronic academic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접수일자 1999년 8월 16일

## 1 서론

인쇄형태의 학술저널은 현재까지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학술저널은 특정분야에서 개인이나 기관의 연구물을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학술저널의 성장은 곧 지식과 학문의 발달로 연계되어 왔다.

최근에 등장한 전자저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형 멀티미디어가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그 영역을 급속하게 넓혀가고 있다. 전자저널의 개념은 20여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1994년 이후 인터넷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자저널을 통한 학술정보 활동은 연구자들의 연구환경과 정보수집에 있어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학술저널 관리상에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저널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 보며,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있어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를 분석한다. 상이한 전공영역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직급별 유층 표집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현황, 기타 전자정보 시스템의 이용 여부, 개방형 평가에 대한 인식, 질적 신뢰성, 비이용 요인, 장점과 단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다. 분석된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에 의거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전자학술저널 관리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전자저널의 개념과 특성

전자매체를 활용한 연구나 저술활동에서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기준에 대하여 공통적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저널의 일반적인 개념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형태의 저널과 CD-ROM과 같이 고정된 매체를 활용한 저널을 통괄하는 광의의 해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저널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전자저널과 온라인저널을 구분한 개념적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저널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생산·출판되며 전자적 매체만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온라인저널은 Dialog와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망을 통해 볼 수 있는 Current Contents, Harvard Business Review와 같이 인쇄된 저널을 전자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The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s Lists(1998)에 3,400여 종이 넘는 전자출판물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1,465종이 순수한 의미의 전자학술저널로 1002종은 학자들 간에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며, 708종의 저널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1년에 100여종에 불과하던 전자출판물이 1995년에는 600여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0,000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자학술저널의 급속한 성장은 Web 환경의 발전과 정교하고 세련된 검색도구의 개발로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학술저널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쇄형태

의 학술저널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학술저널이 갖는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정동열, 김정현 1996).

첫째, 저작물의 전자전송을 통해 빠르게 출판되고 배포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둘째, 출판비용이 많이 드는 인쇄형태의 학술저널에 비해 전자학술저널은 출판비용과 배포비용이 저렴하다. Harnad(1995)는 전자학술저널의 경우 종이, 인쇄, 마케팅, 배포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쇄형태 학술저널에 비해 70%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빠른 출판 속도와 용이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연구자와 독자들간에 상호 자유로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잡지의 독자는 전자메일을 이용해 연구자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연구자는 즉시 보완하고 수정하여 연구를 완성할 수 있어서 보다 상호작용적이다.

넷째, 데이터와 정보를 표현하는 혁신적인 방법의 개발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하여 다른 연구자의 저작물 및 관련 분야 내용과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문자 및 그림뿐만 아니라 동화상, 소리, 3차원 입체영상까지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본문에 도표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을 경우 인용된 원래 정보원으로 직접 링크를 할 수 있게 하여 인용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는 인용된 자료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공된다. 또한 참고문헌에 인용된 문헌의 URL 등을 링크시킴으로써 원문

전체를 검색할 수도 있다.

다섯째, 편의의 측면에서 전자학술저널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디스켓이나 CD-ROM에 많은 기사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어 후대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자학술저널이 인쇄학술저널에 비해 갖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학술저널과 달리 전자학술저널은 도구에 의존적이다. 즉, 네트워크상에 있는 저널을 검색하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전자학술저널은 인쇄학술저널에 비해 지속적이지 못하다. 네트워크상에 있는 전자학술저널은 쉽게 없어지거나 수정,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이용자나 도서관에서 전자학술저널을 수집, 보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다.

셋째, 질적인 문제이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은 공식적인 평가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전자학술저널의 내용에 대한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경향도 나타난다.

Butler(1995)는 전자학술저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로 "학술적 연구에 근거한 독창적인 내용으로, 연구자 집단의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전자 네트워크가 주된 배포나 전달의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Butler가 제시한 특징에서 유의할 점은 배포·전달방법과 평가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인쇄학술저널에서도 독창적인

연구로 다른 연구자의 평가가 실시되어 온 점은 동일하다. 궁극적으로 인쇄학술저널과 전자학술저널의 차별성은 전자학술저널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배포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방법상의 차이이다.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학술저널의 평가상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된다. 질적 수준의 통제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학술저널로서의 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학술저널의 평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방형 평가'(open peer review) 체제가 현재 미국의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자연과학자들 간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 개방형 평가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초고나 완성전 단계의 연구물을 전자 네트워크상에 올려 놓고 신속하게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평가방법이다. 개방형 평가 시스템이 종래의 인쇄학술저널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쇄학술저널의 평가는 대체로 한 연구물에 대하여 3인 내외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개방형 평가는 광범위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연구물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인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갖는 평가상의 신뢰성이나 가치하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형 평가는 전자저널의 장점에서 기술하였듯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여 저술활동 및 평가의 시간 절약은 물론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다 신중한 저작활동과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 3 전자학술저널 이용행태 분석

#### 3.1 응답자 구성

학자들의 전자학술저널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8개 전공분야에서 각 15명씩 전체 12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1999년 3월 중순에서 4월말까지 전자우편으로 실시되었다(부록 참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인문·사회계열의 4개 전공영역은 영문학, 사학, 경영학, 경제학이며, 자연계열은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의학, 약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영역의 선택은 전자학술저널의 이용 여부에 따라 사전면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대상 교수는 각 전공별로 직급에 따라 유층표집(stratified sampling)을 근거로 조교수 이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하여 각 5명씩 표집되었다. 직급별 유층표집의 목적은 직급간에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현황과 태도, 경험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교수들이 경력 이 오래된 나이가 많은 교수들에 비하여 전자문헌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응답대상자 120명 중 105명의 교수가 설문을 회신하여 87.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는 정교수 34명, 부교수 33명, 조교수 이하 38명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3.2 전자학술저널 및 전자정보 이용 여부

설문 응답자 105명 가운데 37명(35.2%)이 전자학술저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표 1〉 설문지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전 공	응답자수 (회수율, %)	직급별 응답자수	전 공	응답자수 (회수율, %)	직급별 응답자수
영문학	12 (80)	교 수 4	물리학	15 (100)	교 수 5
		부교수 3			부교수 5
		조교수 5			조교수 5
사 학	11 (73.3)	교 수 3	전기전자공학	13 (86.7)	교 수 4
		부교수 4			부교수 4
		조교수 4			조교수 5
경영학	13 (86.7)	교 수 4	의 학	13 (86.7)	교 수 5
		부교수 4			부교수 4
		조교수 5			조교수 4
경제학	14 (93.3)	교 수 4	약 학	14 (93.3)	교 수 4
		부교수 5			부교수 5
		조교수 5			조교수 5

〈표 2〉 전자학술저널 및 전자정보시스템 이용여부, 개방형 평가 실시 현황

(단위: 명.)

전 공	직급별 응답자수	전자학술 저널		E-mail/ 인터넷*				개방형 평가	전 공	직급별 응답자수	전자학술 저널		E-mail/ 인터넷*				개방형 평가
		이용	비이용	비	E	I	EI				이용	비이용	비	E	I	EI	
영문학	교 수 4	0	4	2	2	-	-	0	물리학	교 수 5	1	4	1	3	-	-	0
	부교수 3	1	2	1	1	-	-	0		부교수 5	1	4	-	3	-	1	1
	조교수 5	1	4	-	3	-	1	0		조교수 5	3	2	-	1	-	1	1
사 학	교 수 3	0	3	1	2	-	-	0	전기전자 공학	교 수 4	0	4	1	3	-	-	0
	부교수 4	0	4	-	4	-	-	0		부교수 4	2	2	-	-	1	1	0
	조교수 4	1	3	-	2	-	1	0		조교수 5	3	2	-	1	-	1	1
경영학	교 수 4	1	3	1	1	-	1	0	의 학	교 수 5	2	3	-	2	-	1	0
	부교수 4	2	2	-	1	-	1	0		부교수 4	3	1	-	-	-	1	0
	조교수 5	2	3	-	2	-	1	1		조교수 4	3	1	-	-	1	-	1
경제학	교 수 4	1	3	1	2	-	-	0	약 학	교 수 4	1	3	-	2	-	1	0
	부교수 5	2	3	-	3	-	-	0		부교수 5	2	3	-	2	-	1	1
	조교수 5	2	3	-	2	-	1	1		조교수 5	3	2	-	1	-	1	1
인문사회 계열	소계 50	13	37	6	25	0	6	2	자연계열	소계 55	24	31	2	18	2	9	6

\* 비 : E-mail과 인터넷 모두 비이용자  
 E : E-mail만 이용자  
 I : 인터넷만 이용자  
 EI : E-mail과 인터넷 모두 이용자

었다. <표 2>와 같이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각 5명, 영문학 2명, 사학 1명으로 전체 응답자 50명 중 13명(26%)인 반면, 자연계열은 4개 전공 모두 고르게 5~7명으로 55명 중 24명(43.6%)으로 자연계열 교수들이 인문·사회계열 교수들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급별 이용현황은 일반적인 전자문헌 이용에 대한 연구(Luther 1998; Tomney, H & P. F. Burton 1998; Hitchcock, Carr & Hall 1996; Schauder 1994)들과 유사하게 직급이 낮은 젊은 연령층의 교수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인문·사회계열의 직급별 분포는 교수 15명 중 2명, 부교수 16명 중 5명, 조교수 이하 19명 중 6명이며, 자연계열은 교수 18명 중 4명, 부교수 18명 중 8명, 그리고 조교수 이하 19명 중 12명으로 전자학술저널의 이용에 있어 계열간, 직급별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자학술저널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 68명(전체 응답자의 64.8%)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WWW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전자정보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8명의 교수가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양자 모두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43명의 교수는 전자우편만, 2명의 교수는 인터넷만, 나머지 15명의 교수는 전자우편과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용자 중에서 8명은 순수하게 어떠한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전자정보시스템에 대한 친근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학술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잠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자학술저널의 이용과 동시에 국내의 타 연구자들의 연구물에 대하여 개방형 평가를 요청 받거나 스스로 의견을 제시한 경험에 대하여는 인문·사회계열 2명(경영학 1명, 경제학 1명), 자연계열은 6명(물리학 2명, 전기전자공학 1명, 의학 1명, 약학 2명)으로 극소수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3 전자학술저널 정보수집, 평가 및 이용 방법

<표 3>은 전자학술저널 이용자들의 전자학

<표 3> 전자학술저널의 정보수집 방법, 질적 평가 및 이용방법

(단위: 명, %)

정보수집방법	응답자수 (비율)	질적 평가	응답자수 (비율)	이용 방법	응답자수 (비율)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발견	12(32.4)	인쇄학술저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5(67.6)	다운로드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	13(35.1)
다른 연구자의 참고문헌 참조	13(35.1)	인쇄학술저널보다 우수하다	3(8.1)	다운로드 받아놓고 인쇄한다	16(43.3)
학과 동료로부터 입수	6(16.2)	인쇄학술저널보다 열등하다	2(5.4)	원래의 서버에 두면서 표시를 해 둔다	4(10.8)
기 타	6(16.2)	우열을 평가하기 곤란하다	7(18.9)	읽어보고 그냥 둔다	4(10.8)

술정보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과 연구물에 대한 질적 평가 및 이용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전자학술저널 이용자 37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전자학술저널에 대한 정보의 수집방법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다른 연구자의 참고문헌 참조'가 13명(35.1%),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발견'이 12명(32.4%), '학과 동료로부터 입수'가 6명(16.2%)이며, 그 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대학도서관의 소개' 3명(8.1%)와 '소속 학회의 간행물' 2명(5.4%), '일간지에서 입수' 등으로 아직까지 일정한 정보수집 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자학술저널에 게재된 연구물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25명(67.6%)이 종래의 '인쇄학술저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반응과, 3명의 응답자는 오히려 '인쇄학술저널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자학술저널의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8명(75.7%)의 교수는 8개 전공 영역에서 직급에 따른 차이 없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결과로, 전자학술저널을 이용하고 있는 교수들은 전자학술저널의 가치와 신뢰성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쇄학술저널보다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2명에 불과한 것은 전자학술저널의 전반적인 수준이 교수들의 연구에 만족할 만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전자학술저널에서 발견한 연구물에 대한 이용방법으로는 해당 문헌을 본인의 컴퓨터나 디스켓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은 물론 인쇄

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이 16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이 13명(35.1%), 원래의 서버에 그대로 두면서 북마크와 같은 표시를 해 두는 경우가 4명(10.8%), 그리고 스크린상으로 읽어보고 그냥 둔다가 4명(10.8%)으로 응답되었다.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 Web상에서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확보해두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4 전자학술저널 비이용 요인

전자학술저널 비이용자 68명을 대상으로 전자학술저널의 비이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비이용 요인으로는 전자학술저널의 존재 여부, 곧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이 49명(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계열이나 전공, 직급에 구분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불편함 7명(10.3%)과 인쇄학술저널보다 신뢰성 결여 6명(8.8%)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인문·사회계열의 교수들은 전자정보기술에 대한 불편함이 두 번째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연계열의 교수들은 인쇄학술저널보다 신뢰성 결여를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하여 대조를 보였다. 기타 소수의 의견으로는 미국 중심의 저작물에 대한 거부감과 학술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귀하의 전공과 관련된 전자학술저널이 이용 가능하다면 추후에 이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68명 중 64명

〈표 4〉 전자학술저널의 비용요인 분석

(단위: 명, %)

비용요인	응답자수	계열별
관련분야의 전자학술저널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 결여	49(72.1)	인문·사회 25
		자연 24
전자정보기술에 대한 불편함(거부감)	7(10.3)	인문·사회 5
		자연 2
인쇄학술저널보다 신뢰성 결여	6(8.8)	인문·사회 2
		자연 4
외국(미국) 중심의 저작물에 대한 거부감	3(4.4)	인문·사회 2
		자연 1
학술지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2(2.9)	인문·사회 2
		자연 0
기타	1(1.5)	인문·사회 1
		자연 0
누 계	68(100)	인문·사회 37
		자연 31

이 이용할 것으로 대답하여 전자학술저널이 교수들간에 주요한 학술정보 교환 네트워크로 성장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3. 5 전자학술저널 이용상의 장단점 비교

전자학술저널 이용자와 비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학술저널 이용에 있어 인식되는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였다(〈표 5〉 참조). 전자학술저널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응답한 내용은 '접근 용이성'으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80% 내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에서 35% 정도로 나타났다. 그 외의 장점으로 이용자들은 관련 문헌을 바로 인쇄할 수 있다는 점(24.3%)과 다른 연구자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의사소통의 용이성(21.6%)을,

연구물의 수집과 출판의 신속성(13.5%) 등으로 응답하였다. 비이용자들은 관련 문헌 인쇄의 용이성(25.4%), 연구물의 수집과 출판의 신속성(20.9%), 다른 연구자와 의사소통의 용이성(17.9%) 순으로 이용자와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전자학술저널 이용상의 단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용자들은 전자학술저널에 연구물을 제출할 경우 연구실적 평가시에 불인정 등의 불이익(54.5%)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그 다음으로 지적한 연구물을 비공식적인 문헌으로 취급(45.9%)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관련 독자들에게 전달상의 불안감과 저작권 문제, 문헌의 변조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전혀 단점이 없다는 의견도 2명이 제시하였다.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단점에 대한 인



〈표 5〉 전자학술저널 이용상의 장점과 단점

(단위: 명, %)

장 점	응답자수(비율)		단 점	응답자수(비율)	
	이용 (37)	비이용 (67)		이용 (37)	비이용 (66)
접근 용이성	31(83.8)	54(79.4)	문헌의 변조 가능성	6(16.2)	34(51.5)
연구물의 수집과 출판의 신속성	5(13.5)	14(20.9)	저작권 문제	8(21.6)	29(43.9)
연구실에서 검색 가능(편의성)	14(37.8)	23(34.3)	저장시 불확실성	5(13.5)	12(18.2)
다른 연구자와 의사소통 용이성	8(21.6)	12(17.9)	연구실적 평가시 불이익(불인정)	20(54.1)	27(40.9)
관련 문헌 인쇄의 용이성	9(24.3)	18(25.4)	관련 독자들에게 전달상의 불안감	9(24.3)	6(9.1)
관련 문헌의 하이퍼텍스트 링크 용이성	5(13.5)	7(10.4)	비공식적인 문헌으로 취급	17(45.9)	14(21.2)
기 타	2(5.4)	6(9.0)	기 타	9(24.3)	10(15.2)

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용자들은 문헌의 변조 가능성(51.5%), 저작권 문제(43.9%), 연구실적 평가시 불이익(40.9%)의 순으로 단점을 지적하였다.

전자학술저널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지불에 대한 견해를 알아 본 결과 105명의 응답자 중 41명(40.0%)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47명(44.8%)은 해당 전자저널의 내용이 인쇄형태의 저널로 발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과 16명(15.2%)만이 현재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요금처럼 지불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 지불에 다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전자학술저널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지불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전자학술저널의 미래 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학술저널의 성장과 발달은 필연적이면서 그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인식을 피력하였다. 우선 학계에서 전자학술저널에 대한 신

뢰와 가치를 수용할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자학술저널의 개발과 아울러 기존의 저명한 인쇄저널에 대한 점진적 전자저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전자학술저널의 관리방안

### 4.1 전자학술정보 관리의 필요성

교수들의 전자학술저널 이용행태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학술정보와 그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보자원 관리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보사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네트워크 정보의 소비자인 동시에 정보생산자, 중개자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색인이나 목록 등과 같은 보조수단을 체계적으로 제

공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 확실하다. 기존의 수많은 전문출판사들이 전자출판에 참여하고 있는 추세에, 인쇄형태 정보관리 체계를 벗어나 네트워크상의 전자정보관리 체제로 사고와 시스템적 변환이 요구된다. 전자학술정보가 네트워크상에 영원히 보존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자정보의 수집과 저장 및 통정의 임무를 정보전문가가 인쇄본과는 다른 새로운 기법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학술정보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통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어 정보전문가의 적극적인 봉사자세와 프로그램 개발이 수행되지 않으면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학술정보가 인쇄형태에 비해 갖는 효율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교육과 홍보 및 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학술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을 위한 기준과 방법의 설정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반 관리에 필요한 표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자학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아울러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는 인쇄형태 정보의 관리와 개념상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그 기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전자학술정보 관리업무를 장서개발, 즉 전자학술정보의 선정과 수집업무, 정리와 저장, 정보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 4. 2 선정과 수집

전자학술정보에 대한 장서개발 개념은 소유

(ownership)에서 접근(access)으로의 변환을 의미하게 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없이 그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를 이용자에게 교육시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도서관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선정하여 수집한다는 장서개발 원칙이 네트워크상에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네트워크상의 정보는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수정, 보완, 삭제 가능하며, 서로 상이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검색 그 자체가 바로 소유를 의미할 정도로 이용자에게 더욱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의 전자정보수집은 인쇄형태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내용분석과 유용성, 적합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아울러 항상 검색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전자학술저널 선정과 수집의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해당 도서관의 학술정보로서 전자저널 그 자체가 가지는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에 앞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학자들의 전자학술저널 정보수집 방법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동일한 학문분야에 다른 연구자들의 참고문헌을 분석하거나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전자학술저널의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저널이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내용에 관한 평가와 지표, 그림 등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평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빈번히 이용될 것인가 하는 학술정보로서의 이용가능성 및 비용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유용성에 관한 평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

히 전자학술저널의 질적 수준 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의 인쇄학술저널 질적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측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학술저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해당 분야 학자들의 의견이나 추천방법 역시 선정과 수집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술저널 선정담당 전문가의 자질은 두 가지 면에서 강조된다. 하나는 포맷보다는 주제에 중점을 두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주제에 관련된 전자학술저널을 선정해야 하는 주제 전문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새로운 정보의 소스를 계속적으로 검색하는 검색 전문가적 자질인 기술 전문지식을 발달시켜야 한다(Ungern-Sternberg et. al., 1995).

선정시에는 반드시 파일 포맷이나, 파일의 수, 파일의 증가율, 사이즈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선정 후 실제적인 학술저널 입수는 인쇄잡지와 같은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즉, 구독사항, 업자관리 기록, 체크인 기록, 클레임 업무 등이 요구된다. 특히 출판사마다 인가와 구독 관계가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수과정에서 구독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주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저널 출판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배포방식에는 세 가지로 첫째, 전자우편으로 신간호가 나왔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둘째, 목차, 초록을 보내거나 셋째, 하나의 기사, 또는 한 호(issue)를 보낸다. 이에 따른 구독방식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메시지가 접수되거나, 목차, 초록을 받으면, 원하는 기사만을 선택해서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

과 출판사가 보낸 신간호를 자동으로 입수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입수과정에서는 인쇄본의 페이지의 인쇄가 올바른지, 빠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흠없는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파일의 점검 후 인쇄저널과 같은 일반적인 처리과정을 밟는다.

전자학술저널의 체크인은 연속간행물의 standing order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 신간호가 도착하지 않으면 출판사에 전자우편으로 클레임을 보내며, 파일이 접근 가능하다면 회답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클레임 처리는 훨씬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신간호는 온라인으로 체크됨으로써 즉시 소장사항에 기록될 수 있다.

#### 4. 3 정리와 저장

다양한 전자학술저널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와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리업무의 기본인 서지통정이 필요하며, 전자학술저널은 표준 목록과 상세한 소장사항, 그리고 접근지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학술저널은 인쇄저널과 달리 전문과 소장정보의 링크기능이 이용자의 접근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보의 목록은 인쇄형태의 목록 이상으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전자정보 환경에서는 정보접근이 최대의 관심사이기에 '목록'이나 '색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목록' 또는 '가상색인'의 형태로 중앙화된 종합목록 시스템의 구축이 효율적이다.

전자학술저널을 목록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서명은 전자출판물의 목록을 위한 표준과

가이드에 따라야 하고 특별히 인쇄저널의 서지정보와는 다른 정보 즉, 주소와 적절한 파일 서버가 요구된다. 아울러 데이터가 기록된 완전한 MARC이 필요하며, 출판사항과 구독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 및 서명 접근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서명에 표준 주제표목어(예: LC Subject Headings)가 지정되어야 하며, 각 레코드는 "전자저널"이라는 지시자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전자저널을 목록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권(volume)과 호(issue)를 기록하는 문제와 출판사와 출판지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주문형출판에 따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저널의 목록에 대한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도서관에서 다루는 전자 정보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AACR2와 USMARC에 있어서 새로운 컴퓨터 가독형 정보원에 대한 수용이 시도되고 있다.

자료의 계속적 이용을 위해 자료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저장은 기본적으로 자료의 선정 및 수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자료의 선정 및 수서는 자료의 평가와 저장에 바탕이 되어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보의 저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기존의 매체와 다르게 행해져야 한다(Brichford & Maher 1995). 첫째,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는 전자정보를 생성시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용가능하고 작동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전자정보 저장을 위한 물리적 매체의 수명은 이제 매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명보다 훨씬 길어졌다. 셋째, 정보의

복잡성 때문이다. 기존의 파일의 복사나 출력은 전자출판의 접근 시스템이나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동적인 특성까지 보존할 수 없다.

이러한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저널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자신의 컴퓨터나 디스켓에 다운로드 받아 놓고 인쇄를 하거나 화면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메인프레임에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LAN에 저장할 것인가가 선택사항이 된다. 메인프레임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할 경우 얼마나 빨리 파일들을 테이프와 같은 비싸지 않은 오프라인 저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해 가치있는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LAN에 저장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파일저장 가용성, 파일의 전송, 다운로드, 프린팅의 제반절차에 대한 이용자의 익숙 정도, 유지와 데이터 보존비용, 지난 호 보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파일 크기, 대체 포맷의 이용가능성, 외부 파일의 이용가능성, 필요한 하드웨어, 데이터의 개정 및 보완 등도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백파일은 CD-ROM이나 디스켓과 같은 포맷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저널에 기록된 정보가 언제든지 쉽게 삭제되고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접근점에 따른 복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 문서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 4. 4 정보제공

전자학술저널 비이용 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은 관련분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인터넷 상의 전자학술저널 이용이 개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쇄학술저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Collins와 Berge(1994)는 “전자저널의 존재를 아는 것과 전자저널에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Knowing that e-journal exist is one thing; getting access to them is another)라고 이용자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강조하면서 접근에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사용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전자저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저널에 있는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색인과 초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용자에게 전자학술저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원거리 네트워크상에 있는 전자정보를 그대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다를 바 없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집 혹은 구독하여 저장해 둔 상태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파일로부터 직접 전자저널을 프린트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워드프로세스로 편집한 후 인쇄한다. 이 때 인쇄저널을 제본하고 서가에 배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된 전자저널을 다룰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대출은 전자저널의 배포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자 매체의 장점에 따른 효과를 절감시킬 뿐

만 아니라 인쇄, 제본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온라인 파일을 디스켓과 같은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받은 후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파일을 처리하고 PC를 통해 접근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전자형태로 파일을 유지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플로피 디스켓에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PC마다 각 포맷이 다르므로 도서관에서는 원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드웨어 유지비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파일을 유지하고 LAN을 통해 접근을 제공한다. 이는 메인프레임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도서관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용자는 PC로부터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해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할 수도 있고 OPAC과 같이 계정 없이도 메인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저널을 누구나 접근해 검색할 수 있다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보는 쉽게 이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전자저널이 캠퍼스 네트워크에 올려지고, 모든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학술저널 이용상의 가장 큰 장점이 접근의 용이성인 것처럼 접근에 걸림돌이 존재하는 한 전자정보제공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터미널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은 터미널의 적절한 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는 많은 국내외 대학에서 CWIS(Campus-Wide Information Systems)에서 전자저널이 도서관 서비스 메뉴에 통합되어 이용자들

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5 결 론

학자들의 전자학술저널 이용정도가 아직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학술저널이 점차 학자들의 연구와 출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은 분명하나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연구물 평가, 저작권 문제와 비용 등이 전자학술저널의 발전과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들 수 있다.

개별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근본적인 과제는 전자학술저널을 검색하는 경로나 기법에 대한 노하우의 개발이다. 접근 용이성과 연구실에서 직접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어디서 어떻게 적합한 연구물을 찾아내는가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정보전문가에 의한 전자정보 생산활동의 강화와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치 운영이 필연적이다.

아울러 전자학술저널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에서 전자저널에 대한 권위와 명성을 어떻게 부여하고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전자학술저널이 인쇄학술저널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환경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전자학술저널의 생산은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며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그림이나 음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WWW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는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자저널이 인쇄저널과 대등한 학문적 신뢰성 획득 문제, 전자저널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른 기술적 문제, 전자정보의 지속적인 저장과 관리 및 비용 문제 등이 시급한 과제들이다.

학술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각 구성원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전자저널을 도서관 업무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보의 접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미래의 도서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보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저널을 도서관에 구현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전자저널의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이 필요한데, 저장능력,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직원의 훈련, 통합된 목록작성을 위한 표준의 제정,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이용자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아직 전자저널이 초기 단계라는 한계 때문에 전자저널의 접근을 위한 색인이나 초록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전자저널의 접근가능성을 위한 검색 방법의 개발이나 서지의 작성이 시급하다.

통신망과 컴퓨터의 계속적인 발전현상이 정보이용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선택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련의 관리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임무로 남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방안의 효율적인 적용과 실행을 위해 각종 제도 및 정책, 표준화 및 서

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동열, 김정현. 1996. "전자잡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논문집 85-88.
- Bailey, C. W. 1998. Scholarly Electronic Publishing Bibliography. [cited 1999.4.20]. <<http://info.lib.uh.edu/sep/sep.html>>.
- Brichford, M. & W. Maher. 1995. "Archival Issues in Network Electronic Publication." Library Trends 43(4): 701-712.
- Butler, H. J. 1995. "Research into the reward system of scholarship: where does scholarly electronic publishing get you?" In Filling the Pipeline and Paying the Piper: Scholarly Publishing on the Electronic Networks: Proceedings from the Fourth Symposium,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Edited by A. Okerson, 167-177.
- Collins, M. P. & Z. S. Berge. 1994. "IPCT Journal: A Case Study of an Electronic Journal on the Internet." JASIS 45(10): 771-776.
- Directory of Electronic Journals, Newsletters and Academic Discussion Lists 7th ed. 1998. Office of Scientific and Academic Publishing,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cited 1999.6.11]. <<http://www.arl.org/scomm/edir/>>.
- Harnad, S. 1995. "Electronic Scholarly Publication: Quo Vadis." Serials Review 21(1): 70-75.
- Hitchcock, S.; L. Carr & W. Hall. 1996. A Survey of STM Online Journals 1990-95: The Calm Before the Storm. [cited 1999. 5.30]. <<http://journals.ecs.soton.ac.uk/survey/survey.html>>
- Luther, S. 1998. Full Text Journal Subscriptions: An Evolutionary Process. [cited 1999. 6.3]. <<http://www.arl.org:591/luther.html>>
- Schauder, D. 1994. "Electronic Publishing of professional articles: attitudes of academics and implications for the scholarly communication industr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2): 73-

100.  
Tomney H. & P. F. Burton. 1998.  
"Electronic journals: a study  
usage and attitudes among  
academics." Journal of Informa-  
tion Science 24(6): 419-29.

Ungern-Sternberg, Sara von &  
Lindquist, Matz G.(1995). "The  
impact of electronic journal on  
library function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1(5): 396-401

### 전자학술저널의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부 록〉

1. 귀하의 전공은? ( )  
※ 2~10은 해당 문항에만 V 표시를 하십시오.
2. 귀하의 현재 직급은?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이하( )
3. 연구를 위하여 '전자학술저널' 을 이용한 경험은?  
이용( ) → 4, 5, 6, 7, 8, 11, 12, 13과 기타의견 문항에만 응답하세요  
비이용( ) → 4, 9, 10, 11, 12, 13과 기타의견 문항에만 응답하세요
4. 아래의 정보시스템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E-mail( ) 인터넷/WWW( ) 모두 이용하지 않음( )
5. 개방형 평가(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타 연구자의 연구물에 대한 다수의 평가방법)  
시스템으로 국내외 타 연구자의 연구물을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험은?  
평가/의견 제출 경험 있음( ) 평가/의견 제출 경험 없음( )
6. 전자학술저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요?  
( )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발견  
( ) 다른 연구자의 참고문헌 참조  
( ) 학과내 동료 교수로부터 입수  
( )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전자학술저널의 질(quality)에 대하여 귀하의 평가는?  
( ) 인쇄학술저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 인쇄학술저널보다 우수하다  
( ) 인쇄학술저널보다 열등하다  
( ) 우열을 평가하기 곤란하다
8. 귀하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술전자저널을 전자 네트워크에서 찾았을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 (    ) 다운로드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  
 (    ) 다운로드 받아놓고 프린트로 인쇄  
 (    ) 원래의 서버에 두면서 표시(예: 북마크)  
 (    ) 읽어보고 그냥 서버에 둔다
9. 전자학술저널의 비이용 요인을 한가지만 표시하세요.
- (    ) 관련분야의 전자학술저널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 결여  
 (    ) 전자정보기술에 대한 불편함(거부감)  
 (    ) 인쇄학술저널보다 신뢰성 결여  
 (    ) 외국 중심의 연구물에 대한 거부감  
 (    ) 학술지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    ) 기타
10. 귀하의 전공과 관련된 전자학술저널이 이용 가능하다면 추후에 이용하겠는지요?  
 이용한다(    )                      이용하지 않는다(    )
11. 전자학술저널 이용시 예상되는 장점을 2가지만 표시하세요.
- (    ) 접근 용이성                      (    ) 연구실에서 검색 가능(편의성)  
 (    ) 연구물의 수집과 출판의 신속성    (    ) 다른 연구자와 의사소통 용이성  
 (    ) 관련 문헌 인쇄(print)의 용이성  
 (    ) 관련 문헌의 하이퍼텍스트 링크 용이성  
 (    )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2. 전자학술저널 이용시 예상되는 단점을 2가지만 표시하세요.
- (    ) 문헌의 변조 가능성                      (    ) 저작권 문제  
 (    ) 저장시 불확실성                      (    ) 연구실적 평가시 불이익(불인정)  
 (    ) 관련 독자들에게 전달상의 불안    (    ) 비공식적인 문헌으로 취급  
 (    )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3. 전자학술저널 이용시 이용료를 지불하겠는지요?
- (    ) 지불할 필요없다    (    ) 상용DB와 같은 수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    ) 동일한 내용의 인쇄저널이 없을 경우에만 지불한다
- ※ 전자학술저널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